기독교 시온주의와 대체신학(?)

정형남 선교사

I. 들어가는 말[1)]

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1948년). ②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탈환하였다(1967년). ③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 제 3의 유대교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언젠가). 세대주의에 기초한 기독교 시온주의에 따르면, ①②③은 성경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다. 나는 선교지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1989.9), 나는 위와 같은 세대주의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레인의 아랍교회의 한 모임에서 그 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받았다. 내가 조금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그 담임목사가 서둘러 "예"라고 동의하며 나름대로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다. 그는 이집트 장로교 소속 목사였지만, 개혁/언약신학이 아니라 세대주의에 기초한 기독교 시온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사실, 그 점에 있어서 당시까지의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2)]

요르단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로이 위트만이다(1904-1992). 그의 나이 14세 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고, 그의 나이 21세 때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았다(1925). 그의 선교지를 요르단으로 옮겨 사역하던 중,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1948.5.17.).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성경예언의 성취적 사건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가롯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 사건이 성경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부득불 필요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건국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다. 요르단의 개신교회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출신들인데, 그들을 비롯한 요르단 현지인 지도자들이 로이 위트만의 제자들이다.[3)] 그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라는 말씀의 "그의 나라"(마6:33)가 곧 재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통치할 천년왕국이며, 1948년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그 왕국의 전초적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등을 기초로 하여, 친이파(친이스라엘파)의 길을 걷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심히 슬픈 일이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①②③의 세대주의적 주장은 "누가 성경예언 성취의 주인공인가?"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세대주의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이며, 개혁/언약신학으로 대표되는 비세대주의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는 개혁/언약신학을 대체신학(Replacement Theology or Supersessionism)이라고 비판한다.[4)]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인데, 개혁/언약신학이 그 주인

---

1) 이 논문은 한국선교,KMQ 49호(2014년 봄호)의 "기독교 시온주의 특집" 청탁원고로 처음 작성되었으며, 여기에 약간의 수정과 보완이 되어 소개하였다.

2) 나는 대학시절 세대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세대주의의와 개혁/언약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교연구를 하였지만, 아랍권/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연구에 대하여 더욱 진지하게 되었다.

3) 로이 위트만은 그의 아내와 함께 선교지인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에서 65년이 넘도록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1992). 그의 아내도 그의 남편처럼 요르단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1994). 그 내외는 육신의 자녀들도 없이 오로지 현지인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잘 섬겼다.

공을 교회공동체로 대체시킨다는 것이다. 성경예언성취의 주인공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이기에 보혈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체"라는 개념이 이른바 3대 종교, 즉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안에서 발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체제물"이다. 유대교와 대체제물, 이슬람과 대체제물, 기독교와 대체제물에 대해서 각각 논하는 가운데, 유대교의 대체제물은 그림자이며, 이슬람의 대체제물도 그림자로서의 유대교의 대체제물을 모방한 것이며, 그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이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역시 실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언약신학은 '대체신학'이라기보다는 '실체신학'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5]

II. 유대교와 대체제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대체제물을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이삭은 대체제물 덕분에 제물이 되지 않았다. 그 대체 제물이란 그 두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이었다(창 22:13). 아브라함은 그 대체제물이 준비된 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창22:14). 때가 되매, 이삭을 대신하여 그 대체제물이 드려졌던 모리아산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터가 되었다(대하3:1).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집이 먼저 세워졌다. 다윗의 집이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보좌가 있는 유다 왕국의 왕궁을 일컫거나, 그 왕국 자체를 대표한다(시 122:5). 그리고 예루살렘의 두 집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의 전례가 있다(시 122:4). 그 전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의 명절(유월절, 초막절, 장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그 왕국의 왕권에 대한 복종을 서약하고, 성전에서는 대체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예루살렘의 두 집, 즉 다윗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의 집(성전)이 모두 파괴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했다(주전 586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터의 서쪽 담벼락인 이른바 통곡의 벽만 남아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전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전례가 다시 시행되도록 할 자가 곧 종말의 메시아이다. 그렇게 훼파되었던 예루살렘의 두 집이 메시아를 통해서 재건되기 때문에, ① 다윗의 집은 메시아 왕국이 되고, ② 여호와 하나님의 집(성전)은 메시아 성전이 된다. 유대교에 따르면, 메시아(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여호와 하나님의 집, 즉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제물을 바칠 제단과 성전이 없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터에는 이슬람의 황금의 바위 돔 사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그 사원 안에 놓여 있는 바위는 곧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대체제물의 제단이다.

---

4) Craig A. Blaising, "The Future of Israel as a Theological Questi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4:3 (2001): 435.

5) 나의 "아브라함의 아들제사에 대한 성경과 꾸란의 비교연구"(ACTS 세계선교연구, 2012 제 2호)의 여러 부분들이 본 논문에 재활용되었다. 그리고 나의 책,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CLC, 2009)의 몇 부분들도 재활용되었다.

III. 이슬람과 대체제물

예루살렘의 성전 터에는 이슬람의 사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의 바위 돔 사원이고 또 하나는 알아끄사 사원이다. 알아끄사 사원 안의 바닥은 어느 다른 사원들처럼 이슬람교도들이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도록 카페트가 깔려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바위 돔 사원 안에는 카페트는 없고 큰 바위 하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 건물은 사원이 아니라 바위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다. 그 바위는 유대교에 따르면, 이삭을 대신하는 대체제물의 제단이다. 그러나, 이슬람에 따르면, 그 바위는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 있던 무함마드가 환상 중에 행하였다는 두 개의 여행과 관련이 있다. ① 알이스라: 메카에서 예루살렘의 그 바위가 있는 알아끄사 사원까지의 여행이다(코란17:1). 이때 하늘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이 그곳까지 내려 와 무함마드를 환영한 가운데, 함께 알라께 예배를 드렸다. ② 알미으라즈: 그 바위로부터 하늘까지 여행이다(코란 53:8-15). 이슬람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두 여행을 통해서 최대의 선지자(사도)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기초한 이슬람 신앙고백문, 즉 "알라 이외의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가 탄생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2001년 9.11. 테러를 행하기 약 2년 반 전에(1998.2.23), 그의 다섯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옛 성전 터의 알아끄사 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6] 예루살렘의 알아끄사 사원을 수호하고 해방시키기 위한 지하드를 선언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알아끄사 사원이라 함은 예루살렘 성전 터의 황금의 바위돔 사원과 알아끄사 사원이 함께 지칭되는 것이다(참조, 꾸란 17:1). 그 사원 안의 바위는 이슬람의 신앙고백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대체제물을 위한 제단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꾸란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이다. 꾸란의 아브라함도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대체제물이 등장했다. 그 대체제물이란 "한 위대한 희생제물"이다(꾸란 37:107). 코란에는 그 대체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그런데, 그 제물에 관한 어느 아랍 민속 이야기가 있다. 그 대체 제물은 천국에서 40차례의 가을을 거쳐 길러진 살찐 양이었는데, 그 양은 한 천사에 의해서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급히 공수되었다.[7] 그때 그 양은 그 털이 모두 다 빠져 알몸이 되었고, 그 빠진 양의 털은 아라비아 반도 위에 휘날리는 "푸른 하늘 은하수"가 되었다는 것이다.[8]

이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대체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의 하람사원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그 제사가 곧 이슬람의 최대 명절이며 축제인 '에이들 아드하'이다. 그 제사 또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를 아랍어로 핫지라고 한다. 핫지의 기도는 다른 때/곳의 기도와는 달리 그 효과가 10만 배가 된다. 핫지는 이슬람의 5행 중의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약 250만의 핫지들이 하람사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대체제물을 드렸던 무함마드처럼 그들도 그들의 대체제물을 드린다. 그러나 이슬람은 대체제물을 통한 죄의 전가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은 "누구든지 타인의 짐을 그가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절

---

6) www.fas.org/irp/world/par/docs/98023-fatwa.htm
7) 최영길,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844.
8) 최영길. 『이슬람 문화』, 172.

이 5번에 걸쳐 반복한 가운데(꾸란 6:164; 17:15; 35:18; 39:7; 53:38-42), 죄인이 제물에게 그의 죄를 넘겨주는 죄의 전가원리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과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가운데 대체제물의 실체제물이 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9]

IV. 기독교와 대체제물

신약성경에 따르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던 대체제물은 하나의 그림자였다.[10] 그리고 그림자의 실체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수없이 드려졌던 대체제물들의 실체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와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각각 선언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 위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히8:5상, 표준 새 번역).

>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참 형상, 개역 개정)가 아니므로...(히10:1상, 표준 새 번역).

>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몸, 개역 개정)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골 2:16,17, 표준 새 번역).

대체제물 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땅 위에 있는 성전 또는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로 대표되는 구약의 관습들이나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실체이시며, 참 형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초한 유대교는 그림자이고,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시다. 바울의 적대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의 그림자에 집착하는 가운데 바울을 핍박하고 그의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였다(골2:16,17).[11] 예수님이 대체제물의 실체제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천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다.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자.

>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한 때가 언제였는가? 공관복음과 더불어 살펴보면, 그

---

9) 정형남, "개혁주의부활론에 기초한 성경의 아담과 꾸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석사(Th.M) 논문, 2005.에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10) O. Palmer Robertson,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Robertson, O. Palmer.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13.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땅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진 실체와 본질과 성취와 대조되는 그림자와 예표와 예언의 범주에서 생각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설명을 참고하라.

11) 다니엘 J. 에버트 IV.『지혜기독론』, 곽계일 역, (서울: P&R,2012), 162.

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 시험사건을 끝내고 난 후의 어느 날이다. 예수님의 세례사건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재회는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걸친 시험 사건이 끝난 후의 어느 날에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은 첫 만남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였다. 성령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곧 바로 광야로 내몰아내셨기 때문이었다(참조. 막1:12). 또한 그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걸쳐 시험 받고 계신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마치신 후 세례 요한과의 재회를 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스카우트하기 위함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기도 기간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양도해 드리기 위한 양도식 또는 파송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요한복음 1:29-34는 그렇게 귀히 준비되었던 양도식 또는 파송식의 설교말씀의 요약이다.

>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 1:29-34)

세례 요한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요1:33상). 그렇다면, 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1:33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즉 메시아께서도 그에게 나아와 물세례를 받게 될 터인데, 그 때 성령이 메시아 위에 가시적으로 임하도록 하여, 메시야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관복음에 따르면, 그 약속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 위에 임하게 됨으로 성취되었다(마3:16; 막1:10; 눅3:22). 누가복음 1:39-56을 고려하여 볼 때,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메시아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와 물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세례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그에게 나아 와 세례를 받고자 하는 나사렛 예수님을 말리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한다(마3:14).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긴요하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세례 요한은 뭇 영혼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가 베풀었던 물세례는 죄인들이 회개의 징표로 받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3:2)라고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겠다고 자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3:15)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에게 물세례를 베풀도록 설득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부득불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마 3:15).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마 3:16,17).

그 말씀은 시편 2:7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와 이사야 42:1의 "내 기뻐하는 자라..."의 통합 인용된 것이다.[12] 시 2편은 다윗이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록한 등극시이다.[13] 다윗의 후손들이 등극할 때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펼쳐져서 시 2편이 사람의 목소리로 읽혀졌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등극하실 때에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 오셔서, 그 등극식의 주인공인 나사렛 예수가 곧 그의 아들이라고 친히 선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예식이었다. 세례 요한은 그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께서 그 왕국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먼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친히 받으심으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 그는 예수님의 세례식은 등극식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죄의 양도식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드려져 왔던 대체제물들의 실체제물이 되셨음에 대한 확증사건이었다. 또한, 그의 부활.승천.하늘보좌에 앉으심은 그의 세례사건으로 시작된 등극식 -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심 - 이 완성되었음에 대한 확증사건이었다.[14] 오순절 날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그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실체임이 확증된 사건이었다.

V.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제물의 실체로 밝혀졌다는 것은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또한 그의 교회공동체도 실체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존재가 된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재정하시고 선포하신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빵(떡)과 잔으로 각각 기념한다. 그것은 유대교의 대체제물과 3대 명절(축제)와 그 축제와 관련된 것들이 각각 그림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

개혁/언약신학은 세대주의신학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8:13)고 잘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1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는 '대체'적 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취'적이고, '능가'적인 면도 있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능가.대체하셨다는 사실이 기초가 되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

12)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25.
13) Peter C. Craigie, 시편 1-50 (WBC Psalm 1-50) 손석태 역(서울: 솔로몬, 2000). 74.
14) 예수님의 등극식은 세 번에 거행되었다. ① 세례식, ② 변화산 사건, ③ 예루살렘에 나귀타고 입성. 십자가.부활.승천하심.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그의 교회가 곧 메시아 왕국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가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세대주의는 그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과 이슬람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155-184를 보라.
15) Stephen Sizer. *Zion's Christian Soldier? (*England: Itner-Varsity Press, 2008). 16,37,125,159.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는 뜻에서의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는 세대주의자들에 의하여 개혁/언약신학을 경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 점에 대하여 Brian D. Warner는 "대체신학"이라는 글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결론적으로 "대체신학"과 같은 것은 없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누리고 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개념을 선전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개혁/언약신학자들을 경멸하려는 목적으로 "대체신학"이라는 용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기독교인들을 반유태주의자들로 그리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활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16]

세대주의의자들이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을 성경예언성취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계시록 7:1-8이다. 야곱의 12 후손들이 각 지파장이 되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되어, 그 인을 맞은 자의 총수가 144,000명이다(계 7:1-7).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144,000명은 모두 다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러나 개혁신학에 따르면, 그들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 병력으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의 대표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 가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계수되었던 것처럼(민1장, 26장). 그들의 위치는 하늘이 아니라 땅이며(계7:1),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계7:2-4).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함은 곧 계시록의 수신자들로 지목된 소아시아의 7개 교회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계1:1). 여기서 144,000이라는 숫자는 대표수일뿐만 아니라, 상징수이며, 완전수이기도 하다. 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계시록의 저자의 의도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된다. 그 점에 있어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초로 하여 그들을 혈통적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그의 군사들이 되어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144,000명이라고 계수된 영적 전투 병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는 얼마인가? 그 총수가 계7:9에서 밝혀지고 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 보컴은 계 7:9은 계 7:1-8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17] 그 점에 대하여, 이필찬의 설명을 듣게 되면, 세대주의가 개혁/언약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 못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 결국 7:9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는 또 다른 민족의 등장이 아니라 그 민족적 한계를 제거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한 자들로부터 모여든 자들을 포함한다. ....이것이

---

16) www.replacementtheology.org. Brian D. Warner는 미국 Fair Community 침례교회 담임목사이다(http://www.fairportcommunity.org).

17)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225.

바로 7:1-8과 9-17을 서로 병치시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18]

계 7:1-8의 144,000 명이 계 14:1-5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그들은 곧 계 13장의 짐승에 대한 승리자로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 산'에 있으며, 특별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계14:1). 여기서 우리가 '시온 산'의 위치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단정한 것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계 14:3). '하늘'을 '시온 산'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의 계승이다. 곧, 구약에서 '시온 산'은 천상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19] 계7장과 14장에서 두 번에 걸쳐 소개되는 144,000명은 7:9-17의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대표수이고, 상징수이고, 그들과 일치하는 완전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 7:1-8의 144,000과 계 7:9-17의 하늘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로 조화되어 계 14:1-4의 144,000으로 기록되어 있다.[20] 그와 같은 조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계 8-9장의 나팔심판 시리즈와 계 10-12장에서의 교회와 용과의 영적 전투와 계 13장에서 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초가 된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의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요2:4),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십자가상에서(요19:26), 그의 모친을 '여자'라고 각각 칭하는 가운데, 자신이 곧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창3:15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였다.[21] 예수님의 오심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위함이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1:4)라고 할 때 '우리'는 곧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또한, 바울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엡3:10-11)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바임이 분명하다.

성경예언성취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인가, 교회공동체인가?"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은 "야곱의 피냐, 예수님의 보혈이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옛 처갓집 말뚝이냐, 새 처갓집 말뚝이냐?" "통곡의 벽이냐, 교회(공동체) 관련이냐?" "예루살렘 성전 터의 바위/제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제물이냐?" 등의 양자택일의 질문이 되기도 한다. 무슨 뜻인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서도 절을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처갓집이 이사를 갔다. 그렇다면, 그 사위는 새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옛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하는 어리석은 사위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곧 유대교인과 세대주의적 기독교인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터의 '통곡의 벽'(Wailing Wall)이 곧 옛 처갓집의 '말뚝'이며, 옛 처갓집 터의 새 집의 주인은 이슬람이다. 그 성전 터에 세워진 이슬람의 황금의 바위 돔 사원 안에는 바위가 있다.

이슬람에 따르면, 그 바위는 이슬람의 신앙고백문 -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

18)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369.
19) 이필찬, 『내가 속히 오리라』607.
20)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153.
21) Goredn J. Wehnham, 1-15』 박영호 역 (서울:솔로몬, 2000), 203.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 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유대교에 따르면,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다가 그 두 뿔이 숲에 걸린 숫양을 대체 제물로 바쳤던 제단이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대체제물의 실체가 되심이 밝혀졌다. 예수님은 대체제물의 실체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이시다. 그리고 그의 교회 공동체도 성전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초림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기에 그의 교회공동체는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괴된 두 집, 즉 ① 다윗의 집 과 ② 여호와 하나님의 집(성전)의 재건,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두 집은 한 집으로 통합되었다. 두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집은 곧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의 교회공동체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는 곧 그의 신부이며, 새 예루살렘이다.[22]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는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로 거듭나야 한다.[23] 이제는 옛 처갓집 말뚝 - 예루살렘 성전 터의 통곡의 벽 - 이 아니라 새 처갓집 - 새 예루살렘으로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공동체 - 을 보고서 절을 해야 한다. 유대교와 이슬람과 세대주의적 기독교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터의 황금의 바위 돔 사원의 바위는 절대가 되고 본질이 된다. 그러나 개혁/언약 신학으로 대표되는 비세대주의에 따르면, 그 바위(?) 또는 그 바위에서 드려졌던 대체제물은 그림자 또는 예표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의 교회 공동체도 실체이다.

VI. 나가는 말

세대주의는 성경예언성취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스라엘의 혈통적 후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공동체라고 주장하는 개혁/언약 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라는 개념이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에 공히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체제물'이다. 유대교는 대체제물의 정체를 두 뿔이 숲에 걸린 숫양이라고는 밝혔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림자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슬람은 그림자를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언약 신학적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대체제물의 실체이시며,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공동체도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언약신학은 대체신학이라기 보다는 실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로서의 그의 교회를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그림자만을 붙잡고 있다. 더욱 안타깝게도, 기독교 시온주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교와 함께 그림자를 붙잡고, 유대교의 이슬람 -그림자를 모방한 - 과의 싸움에 휘말려 유대교편을 드는 가운데, 그 싸움에 불을 지르고 있다. 더더욱 안타깝게도, 아랍권 개신교회의 교계 지도자들 중의 상당수(요르단의 경우에는 대부분)가 세대

22) 이필찬, 『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246.
23) 정형남의 책 『 메시아 왕국 이슈』의 부제가 바로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는 새 예루살렘 중심적 기독교로 거듭나라!"이다.

주의 신학에 깊이 뿌리 박혀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되어 이스라엘의 앞잡이들로까지 낙인찍혀 있다는 것이다.[24]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공동체 중심적인 기독교, 즉 개혁/언약신학에 기초한 기독교는 실체라고 한다면,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인 이스라엘 중심적인 세대주의적 기독교는 실체와 그림자가 섞여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반면에, 이슬람은 그림자인 유대교를 모방한 것이다. 예컨대, 이슬람의 최대 명절(축제)는 유대교의 3대 명절(축제)을 모방한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4.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_____. 『내가 속히 오리라』. 서울: 이레서원, 2006.

정형남. 『이슬람과 메시아 왕국 이슈』. 서울: CLC, 2009.

_____. "아브라함의 아들 제사에 대한 성경과 꾸란의 비교 연구" 『ACTS 세계선교연구』 2012년 제 2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세계선교연구소, 2012.

_____. "개혁주의 부활론에 기초한 성경의 아담과 꾸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교 신학석사(Th.M) 논문, 2005.

최영길.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국왕 성 꾸란 출판청, A.H. 1417.

최영길. 『이슬람 문화』, 서울: 도서출판 알림, 1999.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Daneil J. Ebert IV. 『지혜기독론』, 곽계일 역, 서울: P&R, 2012.

Blaising, Craig A. "The Future of Israel as a Theological Questi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4:3 (2001): 435-450.

Robertson, O. Palmer.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Sizer, Stephen. *Zion's Christian Soldier?* England: Itner-Varsity Press, 2008.

Wehnham, Goredn J. 『 1-15』 박영호 역, 서울:솔로몬, 2000.

www.fas.org/irp/world/par/docs/98023-fatwa.htm.

www.replacementtheology.org

24) 나는 아랍권의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신학강의와 글들을 통하여, 개혁/언약 신학적 실력을 구비시켜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진리에 기초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지난 25년 여 동안 나의 신실한 멘토가 되어주신 중선협(중동지역선교사협의회) 고문 김만우 목사님의 편지를 여기에 소개한다. "개혁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대주의의 광야를 내닫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신학생을 키우시는 일은 요르단의 미래를 조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은퇴할 즈음에는 확실한 신앙지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날 줄 믿습니다."